

낙하산 인사... 철도 사고... 주장 공백... '위기의 코레일'

오영식 사퇴 '무책임·회피' 비판
사고 녹취록 공개... 여론 들끓어
차기 CEO 선임 장기화 전망



코레일 오영식 사장이 11일 오후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 앞에서 취재진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경영선로'가 사면초가 상태다. 잇따른 철도 사고로 국민적 신뢰도가 저하된 가운데 오영식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경영 공백마저 생겼다. 비효율적인 시스템, 낙하산 인사 등의 병폐도 재조명되고 있다.

◆철도사고 빈번...CEO 사퇴가 답?

12일 업계에 따르면 철도 관련 크고 작은 사고가 한 달 새 10건이 넘었다. 이 중 대형사고는 지난 8일 오전 발생한 강릉선 고속철도(KTX) 탈선 사고다.

기관차를 포함해 10량 모두 철로를 벗어난 초유의 대형 사고다. 다행히 인명 피해 없이 부상자만 있었으나,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고였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자, 코레일 오영식 사장의 책임론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결국 오 사장은 지난 11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업계에선 오 사장의 사퇴가 오히려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인규명을 하지 못한 애매한 시점에서 사장직을 내려놓기 때문이다. 특히 오 사장은 이날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릉선 KTX 사고에 관한 질의를 받기로 한 상태였으나, 한 시간여를 앞두



11일 오전 강릉선 KTX 열차 탈선사고 현황보고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오영식 코레일 사장자리에 명패가 놓여 있다. 오 사장은 오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정인수 부사장이 현황보고를 했다. /연합뉴스

고 돌연 사퇴했다.

사퇴의 변도 책임 회피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사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합리화, 민영화와 상하부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그동안 방치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전후 상황에 담긴 관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코레일을 향한 비판이 더 거세지는 모

양새다.

지난 8일 오전 7시35분 발생한 서울행 806호 KTX 산천열차의 탈선 사고 전후 상황이 담긴 녹취록에선 사고 28분 전 강릉역 인근 선로전환기가 고장 났다는 신호가 감지됐다. 그러나 경보시스템이 엉뚱한 곳을 지목했고, 관계자들은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도 열차를 출발시킨 정황이 파악됐다.

◆낙하산 인사 재조명...차기 수장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코레일의 낙하산

인사가 다시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코레일은 철도청에서 지난 2005년 1월 공기업 형태로 출범한 이후 8명의 사장을 거쳤는데 이 가운데 5명이 철도와 관련 없는 낙하산 사장이었다.

오 사장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3선 국회의원, 문재인 캠프 조직본부장 출신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코레일과 자회사 5곳에 임명된 임원 37명 중 35%(13명)가 여당 등 출신이다. 그러나 역대 코레일 사장 중 임기를 채운 인물은 '제로(0)'다. 정치계로 나가기 위한 통과예례식으로 코레일을 거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번 오 사장 퇴진을 계기로 코레일의 낙하산 인사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차기 수장을 선임하기까지 긴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 홍순만 전 사장이 사퇴한 이후 오 사장이 취임하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해고자 복직, 철도승무원 부채 해결 및 자회사 채용 등 오 사장이 추진했던 노사유화정책과 SR과의 통합 등 이슈를 해결할 만한 적임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aT-농식품부가 꼽은 2019 외식 트렌드는

✔뉴트로 ✔비대면 서비스 ✔편도족 확산

소비자 3000명·전문가 의견 기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외식 트렌드를 설명할 키워드로 '뉴트로 감성', '비대면 서비스', '편도족의 확산'을 선정했다.

aT는 13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외식소비 트렌드 발표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019 외식 트렌드 키워드는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2018년의 외식소비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전문가 20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율해 도출됐다.

우선, 뉴트로 감성은 익숙하지 않은 옛 것(아날로그 감성)들이 젊은 세대에겐 신선하고 새로운 것으로 느껴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뉴트로에는 음식에 제한되지 않고 간판, 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외식분야에서는 골목상권에 대한 관심증가가 이러한 현상을 대표한다. 비대면 서비스화는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대형 마트 등에서 사용되는 무인주문 및 결제시스템의 확산을 의미한다. 무인화·자동화의 확산에 따른 배달앱, 키오스크, 전자결제 등의 발달로 외식 서비스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식업계에서는 사람중심의 고급화된 서비스와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로 양극화 질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편도족의 확산은 식사의 해결 방식이 다양해지고, 편의점에서 즉석간편(HMR)제품을 사먹는 것도 소비자들이 외식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편도족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을 말하나, 2019 외식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편도족의 확산은 단순히 HMR의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편의점이 서비스 및 음식섭취의 공간으로 식당을 대체하게 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을 의미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우체국 상시집배·택배원 2252명 공무원 전환

내년 우분 예산 인건비 300억원 증액
2016년 5.8배...역대 최대규모 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252명의 상시집배·택배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12일 국회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상시집배·택배원 국가공무원 전환 예산과 우정실무원·특수지계약집배원 명절보조금 인상액이 포함된 정부 예산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통과로 우정실무원 전일제와 특수지계약집배원은 명절보조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우정실무원 시간제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우분 인건비가 300억원 증액되면서 상시집배·택배원 2252명이 내년에 공무

원으로 전환된다.

이는 한해 공무원 전환 인원 중 역대 최대 규모로, 2016년 386명의 5.8배에 달한다.

올해 공무원으로 전환된 집배원 1062명을 포함하면 2년간 3314명을 전환하는 셈이다. 이는 작년까지 2년간 공무원 전환 인원 1126명의 3배 수준이다.

우분은 당초 내년부턴 4년에 걸쳐 2000여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할 방침이었지만 국회에서 4년치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모두 반영하자 1년 만에 상시집배·택배원 전환의 공무원 전환을 마치고 있다.

집배원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분 노사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지난 10월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이 작

년 2745시간으로 한국 임금노동자 평균(2016년 2052시간)보다 693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6년 1763시간)보다 982시간 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추진단이 제안한 내년 집배원 정규직 1천명 증원을 위한 예산은 국회에서 삭감당했다.

추진단은 주 52시간 이하 근무를 위해 집배원 정규직을 2천명 늘려야 한다고 내년 1000명을 증원하고, 이후 추가 재정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우정노조는 지난 10일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과 긴급 회동을 갖고 상시집배·위탁택배원의 즉각적인 증원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나인 기자 silkini@

가스안전공-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 일자리창출 등 상생협력 맞손

가스안전공, 협력기금 1억 출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농어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은 12일 가스안전공사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향후 공사 이전지역인 충북지역 및 전국 지역본부·지사 관할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향후 3년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기금은 농어촌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 복지증진 사업, 농어업인 자녀 교육·장학 사업, 정주여건 및 경관 개선사업, 농수산물 판매 등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협력기금 출연·지원에 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출연이 필요한 시점에 해당 사업의 계획서를 협력재단에 제출하고, 협력재단에선 FTA농어업법에 의한 사용목적의 적합성을 검토, 지원대상에 상생협력기금을 수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김승호 기자

신보 혁신스타트업 투자유치 '통합데모데이'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2018 신보 Start-up(스타트업) 통합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혁신 스타트업에게 민간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데모데이에는 신보가 발굴한 퍼스트뱅크 기업, 4.0스타트업 기업 등 혁신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투자유치를 위한 IR(기업 투자설명회) 피칭대회, 홍보부스 운영, 참가기업과 벤처캐피탈간 네트워킹 등의 행사도 진행됐다.

신보는 이날 행사에 앞서 스타트업의 IR 기회 확대와 혁신창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별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이후 통합 데모데이에 참가한 기업들에게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IR 코칭을 제공했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된 '2018 신보 Start-up 통합 데모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보

이날 통합 데모데이에 행사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지능형 IoT, 첨단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12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스타트업은 엘비인베스트먼트, 센트럴투자파트너스, 등 30개 벤처캐피탈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과 스타트업 관계자로 구성된 일반청중 평가단을 대상으로 IR 피칭을 진행했다. /김희주 기자 hj89@

농진청

'건조배추' 시장 개척 배추산업 활성화 추진

정부가 최근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배추산업을 위해 간편식 재료로 활용 가치가 높은 '건조배추' 생산 활성화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즉식 김치 등 건조배추를 간편식 재료로 활용하면 향후 20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일 농진청에 따르면 건조배추는 40℃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배추 전체를 말린 것으로, 소금에 절일 필요가 없는 건강한 간편 식품 소재로 영양 성분도 신선 배추 수준으로 유지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